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OTHER TONGUE

가제 : 모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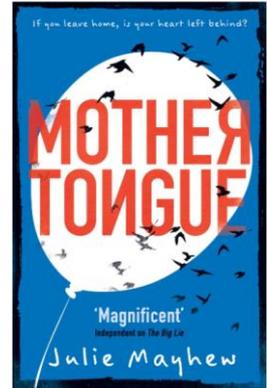
저자 : Julie Mayhew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6년 8월 2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테러의 시대를 체호프처럼 이야기한다.” - 「데일리 텔레그래프」 에밀리 번(Emily Bearn)
- * “정체성, 집, 슬픔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는 이야기” - 루스 릴리(Ruth Lily)
- * 원치 않은 운명에 갇혀 살던 소녀가 비극적인 사고 후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2004년, 러시아 베슬란의 학교에서 체첸 공화국 무장단체가 벌인 인질극은 인질 규모나 엄청난 피해자 숫자로 인해 사상 최악의 인질사건으로 꼽힌다. 3일간 벌어진 특수부대와와의 대치와 총격전으로 380명이 넘게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 대학살로도 불리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는 여동생을 잃은 열여덟 살 소녀가 겪어야 했던 참담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니카가 처음 집으로 온 건 다랴 파블로브나가 열한 살 때였다. 엄마는 며칠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에 돌아왔지만 안락의자에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어린 다랴의 눈에 엄마는 니카를 날다가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흘러버린 사람 같았다. 엄마는 내내 소리 죽여 속삭이듯 이야기했고 침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엄마가 심각한 산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니카를 돌보는 건 다랴의 몫이 되었다. 아빠는 아침 일찍 공장에 일을 하러 가야 하고 다랴보다 어린 남동생이 니카를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랴는 니카의 첫 번째 생일 기념식에도 아빠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제 니카가 학교에 들어가 처음 등교하는 날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신이 열두 살 생일을 맞으면 엄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전처럼 축하노래를 불러주리란 기대가 이후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니카는 여덟 살이 되고 다랴는 열여덟 살이 된 지금, 다랴는 집에 온 첫날부터 엄마 노릇을 하며 키워온 여동생을 엄마아빠보다,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에 남몰래 흐느꼈다. 소리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누군가와 짐을 나눠지고 싶었지만 빠

저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런 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학교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인질극은 작은 니카의 생명도 꺼버렸다. 그 날 이후, 니카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어린 다랴에게서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 아버지는 학교를 졸업하면 같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과 다랴를 결혼시킬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어머니는 니카의 죽음을 모두 다랴의 탓으로 돌리며 그럴지 않아도 힘든 다랴가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만들었다. 베슬란은 이제 다랴가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가족과 친구를 억울하고 처참하게 잃은 사람들이 골목마다 흐느끼는 곳, 가슴을 쥐어 뜯는 고통으로 터져 나온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다랴는 벗어나고 싶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인질극이었던 만큼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베슬란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통해 다랴는 우울 밖 세상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다. 뉴욕에서 온 나이 많은 기자와 인연을 맺게 된 다랴는 결국 모스크바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평생 가본 적 없는 대도시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다랴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가슴 속에 오랫동안 억누르고 응어리진 아픔과 이겨낼 수 없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이일 때 어른이 되어야 했던 소녀, 이제 막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은 성장하지 못한 소녀가 어긋난 정체성의 간격을 좁혀가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 메이휴(Julie Mayhew)는 기자, 배우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RED INK』로 2014년 브랜포드 보애스 어워드 후보에 오른 데 이어 2015년에 발표한 『THE BIG LIE』로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라디오 드라마 각본작가로도 활약하며 『A SHOEBOX OF SNOW』와 『THE ELECTRICAL VENUS』로 BBC 오디오드라마 어워드에서 ‘베스트 오리지널 드라마’ 상 후보로 두 번 선정됐다.

제목 : IN THE SHADOW OF THE SUN

가제 : 해 그림자

저자 : Anne Sibley O'Brien

출판사: Levine Books/Scholastic

발행일: 2017년 7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 * 일곱 살 때부터 한국에서 살고 한국 아이를 딸로 입양하며 평생 한국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작가가 이야기하는 북한 사회의 현실
- * 북한 정부에 쫓기는 신세가 된 십대 형제, 체포된 아버지를 구출하고 살아남기 위한 위험한 모험
- * 『연을 쫓는 아이』의 아프가니스탄처럼, 외부와 차단된 세상의 실체에 관한 놀랍고 생생한 이야기

한국인이지만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열두 살 미아 앤드류스는 오빠 사이먼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 가장 억압적인 통치체제로 악명 높은 나라 북한이었다. 그런데 투어 도중에 아버지가 난데없이 북한 정부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고, 둘만 남은 형제는 북한 시골로 도망간다. 바로 뒤에서 북한군이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돈 한 푼 없이 먹을 것도, 누워 잘 곳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주가 성공해야 아버지도, 두 사람의 목숨도 모두 구할 수 있다.

절대 그룹에서 벗어나지 말 것. 가이드 없이 호텔 바깥으로 나가지 말 것. 사진은 허락 받은 뒤에만 찍어야 하며, 어길 경우 사진이 삭제되거나 카메라를 빼앗길 수 있음. 휴대전화는 소지할 수 있고 국제전화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음. 돈은 유로화나 위안화로 사용할 것. 가이드나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과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지 말 것. '평양 투어'에 합류한 미아는 북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에 관한 안내문을 받아 들었다.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지만, 아빠가 제안한 여행을 무사히 마치려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국제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아빠는 이미 여러 번 북한을 다녀왔고, 자신이 일하는 곳을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생각에 이번 여행을 준비했다. 요즘 들어 부쩍 투덜대고 부모님께 반항이나 하는 오빠는 왜 하필이면 북한처럼 엉망진창인 곳을 구경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화도 내지 않았다. 북한이 그토록 열렬히 세뇌시키려는 것처럼 미국인이 제국주의에 찌든 전쟁광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임을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빠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미아는 평양 투어가 시작된 또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오빠가 여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하고 뉴욕으로 가출했다 돌아온 일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아는 오빠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처럼 느껴졌다. 미국 대사관도 없는 북한에서 수습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 것 같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쪽에서 벌어졌다.

사건은 미아가 투어 도중 위험한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갖게 된 다음 날 벌어졌다. 선물이 라기에 건네 받은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전화기가 있었고, 전원을 켜자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연이어 나왔다. 강제수용소 내부로 보이는 곳에서 처참한 몰골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체로 보이는 어린 아기의 모습은 학교에서 본 홀로코스트 수용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빠가 남매에게 자주 들려주던 북한의 노동캠프의 현실에 관한 묘사와도 일치했다. 미아는 너무 놀라 관광버스가 잠시 주차장에 서 있을 때 오빠 사이먼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북한 측 투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던 아빠가 갑자기 고래고래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소 절대 화를 안 내는 아빠가 저렇게 흥분을 하다니, 남매가 의아해하던 사이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무장한 북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아빠를 어딘가로 끌고 간 것이다.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왜 미아에게 이 위험천만한 사진을 건넨 것이며, 아빠는 왜 체포된 걸까?

미아와 사이먼은 선택의 여지없이 체포되지 않으려고 몸을 피한다.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건 도주를 시작한 두 사람이 의지할 것이라곤 얼마 전 미아가 배운 한국어와 사이먼의 배짱이 전부였다. 북한 사람에게 발각되면 금세 군대나 경찰 귀에 들어갈 수 있고, 진짜 선의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들 때문에 그들까지 그 끔찍한 강제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북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남매의 고된 여정과 함께, 변화를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독특한 스타일로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앤 시블리 오브라이언(Anne Sibley O'Brien)은 의료선교 활동을 위해 한국을 찾은 부모님을 따라 와 일곱 살부터 한국에서 자랐다. 이후 자신을 한국인이자 미국인으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다. 아동 작가로 활동하면서 2006년 아시아태평양 미국 문학상(Asian Pacific American Award for Literature), 이솝 상(Aesop Award)을 수상하고 북리스트(Booklist)에서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만화 소설'로 선정된 『The Legend of Hong Kil Dong: The Robin Hood of Korea』 등 현재까지 30권이 넘는 책을 썼다.